

# 김예솔 졸업생

사회복지학과 11학번  
소속: 한전 KPS 사원



## Q1. 현재 근무하시는 공공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2021년에 공공기관 한전KPS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전KPS는 전력설비 정비 전문 회사로,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부서 행정 전반을 도맡아, 문서 작성, 데이터 관리,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 등, 회사구성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 행사, 교육, 프로젝트 보조 업무를 함께 수행하며 조직 내 소통과 운영을 돕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 Q2. 졸업 후 처음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당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2017년 OO종합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팀 사회복지사로 근무했습니다.  
'클린버스정류장' 사업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버스정류장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고, 사업 추진 기간 중에는 부정 수급자 0건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추경 예산을 확보해 '대중교통안내도우미'라는 신규 사업을 제안했고, 어르신들이 시민들에게 버스 이용을 안내하는 공익 활동도 추진했습니다.

## Q3. 학부 시절 경험이 지금의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학생회 활동에서 배운 기획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사회복지사 시절 경험한 팀워크와 조율력, 그리고 꾸준히 참여한 봉사활동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맡고 있는 행정 및 협업 중심의 역할에서 과거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 Q4. 대학 생활 중에서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3년간 학생회 활동을 이어오며 학과 행사를 기획·운영한 경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MT 기획이 인상 깊었는데, 재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투명한 예산 운영으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행사 종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점을 정리했고, 이를 학과 게시판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으며 학과와 학생회의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 Q5.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대학 시절은 단순히 공부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학생회, 대외활동, 봉사활동 등에 적극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나다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